스위스 윈터 스토리.

지역 명사를 활용한 관광지 스토리텔링

스토리가 있는 지역 명사가 소개하는 겨울 관광지
관광 스토리텔링, 스위스에서도 감성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관광 마케팅 기법
특별한 인물이 가진 스토리를 통해 겨울 관광을 소개하다
스위스 산골 호수 얼음판 위 강태공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기 위한 호텔리어의 스키와 양치기
바람과 함께 여행하다
알불라 계곡의 빙하 시대

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8 년부터 '다시, 자연의 품으로(Back to Nature)'라는 테마에 맞게 스위스 자연의 품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며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체험 거리 700 가지 이상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모든 체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지역 토박이들의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나라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지나 특산품, 향토 음식을 소개하는 데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관광 상품의 차별화 및 가치 발견을 위해 스토리를 가미함으로써 상품 자체보다도, 감동이 있는 개인적인 연관성을 부여함으로써 더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 스토리텔링은 관광지의 자원, 지역주민, 관광객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가치체험으로 생태관광이나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므로 스위스에서도 감성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관광 마케팅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인적 자원(휴먼웨어)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고자 하는 노력이 특히 돋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의 역사와 삶을 함께한 명사를 고품격 이야기꾼으로 발굴 및 육성해 명사의 생생한 '인생담'과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접목해 지역의 여행상품을 고급화하기 위한 '지역 명사 문화여행 프로그램'을 곳곳에서 선보이는 추세다.

스위스에서는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맞아, 스위스 각지의 명사를 주인공으로 한 윈터 스토리를 개발하고, 이들이 소개하는 체험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스위스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 스노우 스포츠를 다채로운 방법으로 만나볼 수 있다.

1. 스위스 얼음판 위 강태공, 루체른 호수 지역(Lake Luzern Region)
낚시는 겨울 리조트, 멜흐제-프루트(Melchsee-Frutt)가 가진 최고의 매력이다. 근처 호수에는 커다란 송어와 곤들매기가 그득하다. 지난여름에 기록을 세운 후로, 열렬한 낚시꾼 우엘리 프란크하우저(Ueli Fankhauser)는 겨울에도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다. 이번에는 로컬 가이드, 구스티 베르흐톨트(Gusti Berchtold)의 도움을 받아보려 한다.

멜흐제-프루트는 알프스산맥으로 둘러싸인 해발고도 1,920m 에 자리한 고원지대에 있다. 이 휴양지는 중앙 스위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로, 루체른(Luzern)에서 한 시간 거리다.

멜흐제-프루트는 낚시의 천국이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지난 18 년 동안 이 루체른 출신의 강태공은 멜흐제-프루트를 줄곧 찾았다. 그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2017 년 여름에 찾아왔다. 길이가 94cm, 무게가 9kg 이나 되는 캐나다 송어를 잡아 올렸을 때다. 멜흐제-프루트에서 난 신기록이었다.

연어과의 생선은 맛이 좋아 무척 인기다. 멜흐제-프루트의 호수에는 여섯 종류의 연어과 물고기가 산다. 레인보우 송어, 갈색 호수 송어 외에도 많은 종류의 곤들매기가 있다. 그 중, 캐나다 송어는 “킹”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바로 우엘리 프란크하우저가 얼음낚시 데뷔에서 눈독을 들이는 열매다.

장비를 잘 챙겨 물고기를. 찾으러 떠난다.
얼음낚시를 위한 장비는 여름의 낚시 도구와는 사뭇 다르다. 먼저 얼음을 치울 수 있는 삽이 필요하고, 그다음으로는 강도가 꽤 센 노동이 필요하다. 손으로 돌리는 날카로운 날의 드릴이 얼음을 뚫는다.

“특히 봄에 얼음이 두껍죠. 올해는 1.9m 나 됐어요.”
멜흐제-프루트의 낚시 가이드, 구스티 베르흐톨트가 말한다.

“드릴로 구멍을 뚫는 일은 꽤 힘들지만, 낚시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나중에는 더 편하죠.”
우엘리 프란크하우저가 설명한다.

70cm 의 얼음 낚싯대와 심혈을 기울여 고른 미끼, 차분한 인내심을 바탕으로 그는 2kg 가 넘고 55cm 가 되는 캐나다 송어를 낚아 올렸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내 세계를 보여준다는 일은 썩 기분 좋은 일이죠.” 구스티 베르흐톨트에게도 만족스러운 하루다.

낚시 가이드는 낚시꾼들을 얼음판으로 데리고 나가 귀한 팁을 알려 준다. 1 일 낚시 허가증, 스노우 슈즈를 포함한 각종 장비를 대여해 주는데, 1 인 CHF 50 이다. 온라인에서도 예약할 수 있다.

프룻 롯지 & 스파 및 패밀리 롯지(Frutt Lodge & Spa and Family Lodge)에서는 잡은 물고기를 깨끗이 정리하고, 진공포장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다, 잡은 생선을 셰프가 손질도 해 주는 서비스를 CHF 20 에 제공하고 있다.

2.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기 위한 스키와 양치기, 체르마트(Zermatt)
체르마트에서 호텔 매니저로 일하는 파울 마크 율렌(Paul-Marc Julen)은 선대의 일을 물려받아 이어가고 있다. 가문의 전통에는 체르마트 태생의 검은 코 양을 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가능할 때면 언제나 이 호텔리어는 아들들을 데리고 마터호른(Matterhorn) 발치에 자리한 스키 피스트를 찾아 속도감 있는 카빙을 즐긴다.

약 360km 에 달하는 피스트와 현대적인 케이블카, 산악 철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역, 다채로운 음식 등. 체르마트가 선사하는 기쁨 중 일부에 불과하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전통을 중시하는 기업가, 파울 마크 율렌에게는 스키 레이스가 직업이 될 뻔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호텔 비즈니스 가업을 잇는 세 번째 세대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는 체르마트 관광에도 헌신하고 있다.

“피스트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일에서의 휴식이 필요한 때에요.” 율렌은 말한다.

어디에 파우더 스노우가 아직도 남아 있을까? 어느 것이 가장 긴 피스트일까? 마터호른 뷰를 보면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율렌은 스키를 타며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팁을 건넨다. 호텔 매니저로부터 직접 조언을 듣는 것은 꽤 근사한 일인 데다, 체르마트에서 자란 덕분에 스키장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그이고, 그 자신 스스로가 겨울 스포츠광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반응이 뜨겁다.

창문을 바라본다. 마터호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인다. 체르마트에 사는 이들에게는 익숙한 딜레마다. 바로 집 앞에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스키장이 있는데, 일을 해야 하고 손님들을 보살펴야 하는 이 상황이 말이다. 하지만 파울 마크 율렌 같은 이라면 언제나 완벽한 스노우 컨디션을 거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저녁까지 업무를 잠시 미뤄두고 스키를 신는다.

특히 일요일은 패밀리 데이이자 스키 데이다.
야르노(Jarno)와 라얀(Rajan)은 스키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은 지 한참이다. 율렌의 두 아들은 율렌만큼이나 스키에 미쳐있는데, 아빠와 함께 슬로프로 향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 일요일은 언제나 율렌 가족들에게는 패밀리 데이다. 겨울이면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다. 피스트로 향하는 것이다.

“우리 가족이 스키를 갈 땐, 어디로 갈지 항상 설전이 오가죠.” 율렌이 말한다.

체르마트는 매혹적인 피스트로 가득하다. 심지어 율렌 가족 같은 로컬들도 완벽한 스키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만 느껴진다. 라얀은 스키 레이스에 심취해 있어 가파른 슬로프를 서둘러 내려가고 싶어한다. 야르노는 점프를 좋아해서 프리스타일 파크에서 온종일 보낼 수도 있는 아이다. 엄마는 여유로운 피스트를 좋아한다. 아빠는 모두를 기쁘게 해주고 싶을 뿐이다.

“체르마트는 스키 자체뿐만 아니라, 스키 여정을 떠나는 여행지라고 봐야 하죠.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것이 있어요.” 율렌은 말한다.

해발고도 3,883m 에 자리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역이 있고, 총 360km 의 피스트가 다양한 난이도를 커버하고, 심지어 여름에도 21km 의 스키장이 버텨준다. 파이프, 키커, 레일이 설치된 프리스타일 파크도 연중 운영된다.

율렌 가족이 쉽게 동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음식이다. 스키 타는 날 음식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각기 다른 취향이 있다. 아침부터 스피디하게 수차례나 하강하느라 기력이 소모된 이들이다. 배고픈 아빠와 두 아이는 테이블 하나를 찾아 어서 앉고 싶은 마음이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녹아내린 라클레트 치즈의 냄새가 공기를 채운다. 발레산 건조육을 골고루 차려낸 플래터는 군침을 돌게 하고, 노곤한 근육이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상큼한 산 공기와 마터호른이 있는 산 세계의 파노라마가 시간을 잊게 만든다. 피스트가 다시 부른다. 이번에는 계곡까지 내려가는 진짜 마지막 긴 하강 코스다.

가문의 근원에 깊은 연결 고리를 형성하는 양치기도 특별하다.
계곡 아래로 향하는 하강 슬로프 마지막에 율렌 가족의 농장이 있다. 아이들은 농장에 가서 양들을 돌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호텔리어 아빠는 선뜻 허락한다. 검은 코 양을 키우는 것은 체르마트 전통의 일부다. 그의 기원을 상기 시켜 주는 일이기도 하다.

양들의 기쁜 울음소리가 외양간을 메우고, 호기심 가득한 양들이 울타리로 향한다. 인사라도 하고 싶은 걸까, 먹이를 좀 얻어먹어 보려는 요량일까? 어쨌든, 성공이다. 야르노와 라얀은 젖병으로 먹이를 주는 것을 좋아한다. 손님들은 양들을 쓰다듬어 주며 이 특별한 종자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이 양 목장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잠드는 베개와 이불은 우리 양들의 털로 만든 겁니다.”

지속가능성도 율렌 가족에게는 중요한 사명이다.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사용한다. 아빠와 아이들은 그들이 만든 건조육을 맛본다. 이제 집에 가서 숙제할 시간이다. 전통의 순환이 완성되었다. 호텔과 스키에서 농장과 가족으로. 전형적인 체르마트 스타일이다.

3. 바람과 함께 여행하다, 샤또데(Château-d’Oex)
80 개의 열기구가 눈 쌓인 알프스 봉우리를 배경으로 날아오르면, 그것은 바로 열기구 축제다. 보(Vaud) 주의 작은 마을, 샤또데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한 이유기도 하다. 이곳에서 꿈이 현실이 된다. 처녀비행과 세계 일주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다. 스위스 항공 선구자, 베르트랑 피캬르(Bertrand Piccard)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샤또데는 레망호 지역(Lake Léman Region)과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사이에 자리한 뻬이덩오(Pays-d’Enhaut) 높은 계곡에 자리한 마을이다.

우리 시대의 콜럼버스가 있다.
베르트랑 피캬르는 1999 년 열기구로 지구를 한 바퀴 돈 최초의 인물이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말이다. 이 모험은 가장 최근에 벌어진 항공 모험으로 꼽힌다. 그는 태양열 비행기로 세계 일주 비행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승리한다. 스위스 열기구의 수도, 샤또데는 그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샤또데가 없었다면 나의 삶은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피캬르가 말한다.
샤또데는 피캬르의 비행에 대한 열정이 기원한 곳일 뿐만 아니라, 열기구를 띄우기에도 이상적인 장소다. 보 지역에서 살던 그가 세계 일주 비행을 이곳에서 시작한 이유 중 하나기도 하다. 일정한 바람은 높이가 55m 나 되는 열기구를 띄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디에 착륙할지 전혀 모르죠.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쓸 뿐이에요. 실제 삶이 그렇듯 말이죠.”
피캬르가 말한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조종? 어려운 일이다. 파일럿은 다른 기류의 흐름에 따라 고도를 조절할 수만 있을 뿐이다. 뻬이덩오의 마이크로기후는 그래서 참 특별하다. 뻬이덩오의 그림 같은 비행 후 이상적인 조건과 완벽한 조종에 따라 샤또데에서 론칭한 지점에 정확히 착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캬르는 2019 년 이를 실제로 체험했다.

실제로 그의 미션은 기후 보호다. 피캬르는 보 주의 있는 집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다.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는 자원 보호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으로, 세계의 힘 있는 인물들을 설득해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후를 위한 새로운 월드 투어가 시작된다.
“생태와 성장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다.

태양 에너지로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고, 소가 발생시키는 메탄가스의 30%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것은 그가 그의 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의 목적은 효과적인 솔루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많은 경우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설명한다.

미래로의 비행이 시작되었다. 친환경 열기구가 탄생했다. 자원을 절약하는 기술이 열기구 세계에도 발을 디딘 것이다. 보온 기술이 적용되어 더 적은 연료를 사용해도 되는 것이다.

열기구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 특별한 위치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고요히 내려다본다. 새로운 에너지를 일깨워 주고, 지평을 넓혀주는 특별한 뷰다.

4. 알불라(Albula) 계곡의 빙하 시대, 수라바(Surava)
매년 겨울 수라바(Surava)에는 스케이터들이 만들어내는 스케이트 라인이 장장 3km 나 된다. 이 독특한 장관은 우연과 함께 로컬 클럽에 대한 무한 열정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다.

수라바(Surava)는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와 빙하특급(Glacier Express)가 다니는 알불라(Albula) 계곡의 작은 마을로, 쿠어(Chur)와 생모리츠(St. Moritz) 사이를 지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불라 철도 선상에 있다. 해발고도 단 900m 높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조건은 아이스 트랙에 이상적이다.

조르지오 보씨(Giorgio Bossi)에게 알불라 스케이트 라인은 예상치 못한 일생의 직업이 되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어 한 명이 이 아이스 트랙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주었죠.” 스케이트 라인 크리에이터, 조르지오 보씨가 말한다.

이 크로스컨트리 스키어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트레일이 꽁꽁 얼었고, 스키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불평했다. 과거에 트레일 디자이너로 일했던 조르지오 보씨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았다. 2001 년

그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트레일을 독특한 아이스 스케이팅 트랙으로 변모시켰다. 무척이나 고된 일과 알불라 계곡의 이상적인 조건으로 탄생한 결과였다.

태양이 없는 두 달이 계속된다. 11 월이면 태양은 수라바를 떠나 1 월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이때 평균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꽤 흔하다. 아이스 트랙을 만들 때가 오면 더 추워질수록 조건이 더 나아지는데, 그래서 영하 10 도 이하로 떨어지면 조르지오 보씨는 마음이 설렌다.

아이스 트랙은 만드는 데 몇 주가 걸리는데, 클럽 멤버들도 한계에 도달하게 만든다. 은퇴한 멤버들은 낮 동안 일을 하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퇴근 후 밤에 자신의 업무를 돌본다.

“100 명 클럽 멤버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스케이트 라인은 없었을 겁니다.” 보씨가 말한다.

추운 날씨는 까다롭다.
영하 15 도 정도의 기온은 아이스 트랙에 좋을지 모르지만, 아이스 메이커들에게는 큰 도전을 가져다준다. 7cm 나 되는 얼음에 덮인 배관은 때때로 얼어 버린다. 그러면 가스버너를 이용해 다시 녹여야 한다.

스케이트 라인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다.
이 클럽은 수라바에 로컬 여인숙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레스토랑 외에도 장비 대여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스케이트를 타고 트랙의 끝까지 가면, 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7 분 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고 나면 순수한 아이스 스케이팅의 기쁨을 사보닌 비비오 알불라(Savognin Bivio Albula) 휴양지에서 30 분 동안 오롯이 만끽할 수 있다.

3 킬로미터의 스케이트 라인을 커버하는 데는 15 분에서 45 분이 소요된다.

흥미진진한 야간 볼거리도 있다.
성수기 동안 아이스 트랙은 매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9 시까지(일요일에는 오후 5:30 까지) 개장한다. 밤에 타는 아이스 스케이팅은 실제로 무척 특별한 체험이다. 모든 필요한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데, 머리에 부착하는 조명도 빌릴 수 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